

연중 제23주일

기도서 P. 431 C해

제1독서(지레 9, 13-19)
제2독서(필레 9-10, 12-17)
복음(루가 14, 25-33)

숲 정이

발행인 김환철
인쇄인 김봉희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강론



예수님의 제자

강 덕 창 신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자랑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살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기전에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살펴 봅시다.

예수께서는 언젠가 "내 형제와 어머니는 바로 하느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제됨은 육체적 혈연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실천하셨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가지는 자야말로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정신적 관계를 맺는 것이며 같은 하느님의 뜻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되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다 하면서 글자 그대로 식구들을 미워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오는 고통을 보고 기뻐하라는 뜻이 아님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참된 뜻은 인간세상에서 중요시 여기고 가치있는 것으로 보는 모든 것보다 하느님과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함을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절대시 하는 자가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형제되는 길은 하느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지나가 버리고 말 이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동시에 하느님과 그분의 뜻만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앙연륜의 장단을 막론하고 구원의 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하느님 뜻을 넘어 절대화된 제도는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우상이며, 죄악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 제자되어 천국에 들기 위해서 모든 것 위에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준행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9월의 복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요, 형제들이었음을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황등 천주교회 주임신부>



고향(故鄉)을

떠나는 사람들

요사이 <뿌리> 찾기가 한창이다. 뿌리라 함은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이 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옛부터 그 뿌리를 중히 여겨왔다. 인륜(人倫)의 대사인 혼인에 있어서는 그 뿌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오늘날 역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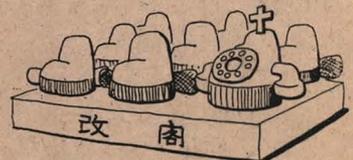
그런데 이 뿌리에서 파생되는 큰 문제점이 있다. 사람들은 갈라놓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문벌(門閥)을 따지고 족벌(族閥)을 따지기도 한다. 학파나 어느 학교 출신이냐는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어느 정치인의 말마따나 "메뚜기 이마 딱딱한 땅덩어리를 놓고 영남이다, 호남이라고 갈라져" 서로 헐뜯기가 일쑤다. 높은 벼슬자리가 어느 지역 출신에게 많이 돌아 가느냐, 어느 지역에 산업시설이 더 많으며, 도로사정은 어떻가고 비교하며 흥분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호남 푸대접」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서로 갈라지고 흩어지게 하기도 한다.

고려의 첫임금인 태조는 그 자손들을 위해 훈요십조(訓要十條)라는 것을 남겼다. 미신적인 풍수 도참 사상이 짙게 반영된 훈요십조에는 "서경(西京-평양)은 수덕(水德)이 순조로와 대업만대(大業萬代)의 땅이니 중시하되 차원(車峴-차령) 이남 공주강(公州江-금강) 외의 산형 지세는 배역하여 인심도 그와 같으므로 등용치 말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전통(?)속에서 한마음이 되기는 어렵다.

최근에는 제가 태어나고 선조들이 살던 고향을 버리고, 자신이나 후손들을 위해 본적을 바꾸는 실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해야만 출세에 지장이 없다고 느끼는 풍토가 문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고향인 하느님만큼은 버리지 말자

숲 정이 산책



「구석 맞추려고?」

—제6차 세계 주교회의가 성공리에 마쳐지도록 기도하기를 촉구하면서

존경하는 형제, 그리고 친애하는 아들, 딸들에게

아래 글은 1980년 9월 26일에 열릴 예정인 제6차 세계 주교회의가 성공리에 마쳐지도록 기도하기를 촉구하시면서 가톨릭 전 교회의 주교, 사제, 및 신자들에게 보내는 교황님의 편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현대 세계 안에서의 그리스도 가정의 임무에 대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9월 26일에 주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가정에 관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토의될 것이며, “가정과 결혼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날에 모든 가정은 그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가정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친히 성자를 통하여 성가정에 나타내신 사랑으로 모든 가정을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그리스찬 가정을 주제로 열리는 주교회의는 전체 교회의 존속과 교회사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리스찬 가정을 주제로 열리는 금년의 이번 주교회의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과 기도로써 그 회의 활동을 뒷받침 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주교회의가 시작될 때 모든 교회는 그 활동에 동참해야겠고, 어느 의미에서 모든 교회가 주교회의에 마음으로 참가하고 무엇보다도 기도와 희생으로 함께 해야겠습니다. 또한 모든 신자는 회의에 참석하는 주교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빛과 힘을 얻도록 기도와 희생, 그리고 영적예물을 바쳐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찬 가정문제가 이번 주교회의의 중요문제가 되는 만큼 그리스찬 가족의 “가정의 교회”가 금년에 열리는 주교회의를 위한 열렬한 기도의 중심요소가 되도록 하여 달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으로 아끼시는 여러분의 아들·딸, 또한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전세계의 모든 가정을 위한 그분의 축복을 얻게 되기를 빌면서 나는 10월 12일 주일을 주교회의를 위한 특별기도의 날로 정합니다. 따라서 그날에 모든 교구와 모든 교회에서는 주임사제의 지시에 따라 공동기도가 바쳐질 것을 나는 원합니다.

그날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이 합심하여 공동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는 가능하면 온 교회의 대표 가정이 로마를 방문하도록 초청하며, 성베드루의 후계자와 주교회의에 참석하는 주교들을 만나서 믿음과 사랑속에 뭉쳐 교회의

모든 가정의 영적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나는 모든 가정을 나자렛의 성가정에 의탁하며 또한 진심으로 여러분과, 존경하는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특별히 모든 가정에 나의 교황 강복을 내립니다.

—바티칸에서 교황 즉위 2년째 해인 1980년 8월15일 성모승천 축일을 기하여—

1980년 주교회의를 위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기도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에나 땅위에 있는 모든 가정이 가정이란 이름을 당신으로부터 받았나이다.

아버지!

당신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여인에게 태어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스런 자비의 원천이신 성신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가정이 자손 대대에 참된 생명과 사랑의 전당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당신의 은총이 그들의 가정을 위하고 온 세상 모든 가정을 위하여 낱편된 자와 아내된 자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게 허락주소서.

모든 자녀들은 자기의 가정 안에서 또한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들의 성장을 위한 건고한 지주를 찾도록 허락주소서.

혼배성사의 은총으로 견고케된 사랑이 가족이 때때로 겪는 모든 약함과 시련보다 더 강해지도록 허락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의 중개를 통하여 교회가 모든 가정 안에서 가정을 통하여 그 전 세계적인 사명을 풍성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허락주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당신에게 성자와 성신과 더불어 간구하나이다.

아멘.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 5669 번

주최 남 수(아בל로니오)

(가톨릭 센터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각종 케첩·카페트·응집셋트·실내장식 일절

삼 성 인 테 리 어

주 이 종 화(바오로)

전화 ㉠ 1330

(팔달로변 전화국 북편 송의과 옆)

□교구소식□



「교구내 제 단체장 연석회의 열려…」

지난 30일 오후 2시에 교구청 회의실에서는 교구내 각 단체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교구내 각 단체활동이 교구와의 유대관계를 좀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이번 모임은 13개단체 대표들과 평협 지도신부이신 김봉희 사목국장, 교육홍보실장 신부, 그리고 평협회장이 참석— 평협 사무국장인 한상갑 선생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조성호 평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서 서로간의 인사와 각 단체 소개가 있었고, 교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의 제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방안, 제 단체간의 협력방안, 그리고 순교자 현양대회 준비에 따른 단체협력 방안과 단체의 각종 교육, 행사문제 등, 여러가지 제반 문제들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을 진지하게 나눴다.

이날 모인 각 단체 대표들은 9월 13~14일에 개최될 교구 평협 임시총회에 참석. 평협과 한자리에서 제 단체 활동육성과 협력관계를 더 깊이 연구 토의하기로 합의했다.

교구내 제 단체들의 발전을 빈다.

교구내 각 본당 일제히 교리시험 실시

금년으로 5차례 맞이하는 순교자 현양대회를 위한 행사 하나인, 교리경시대회가 31일 각 본당에서 일제히 실시되었다.

각 본당 참가신청 응시자수가 무려 7,000여명이 넘는 이례적인 숫자에 교구에서는 즐거운 비명속에 시험지 배당에 밤을 떨떨— 한편은 시험 채점할 일에 작전 고심중, — 비교적 쉬운편이었다는 중론속에 특별히 처음으로 실시된 일반부 시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하지만 그러나 다른 어느 부보다 일반부 응시 신청자 수가 제일 많았음은 기성세대 신자들이 교구행사와 교리공부에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로 제일 흐뭇한 일이었다.

이번 만큼은 꼭 일등하겠다고 베풀고 베풀 끝에 정예부대를 선발, 철저한 안보(?)속에 기막힌 교리공부를 시켰다는 본당이 있는가 하면 예비고사를 몇번씩 치르면서 단단히 준비 시켰다는 모 본당신부님의 활약중, 귀퉁은 5차례를 맞이하는 교구의 큰 행사에 각 본당과 신자들의 많은 관심이 있다는 증거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쨌든 교구 신자 모두가 열면 성의와 관심을 보인 이번 교리경시대회는 참가수가 많았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교리시험 출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접수를 내기 위해서 그 많은 시험지와 씨름하실 분들에게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애파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 2176

茶房 門을

열었습니다.

전주 전신전화국 앞 옛자리 지하

☎ 5013 · 5011

임 금 님

◎담고약L · 우진파스

주효능 · 신경통 · 근육통
진통 · 운동전후

◎부이리진

주효능 · 식욕촉진 · 발육촉진
영양장애

우진제약(주) 전북사무소

소장 이 용 우(비오)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
질,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2377번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 제 공 예

주 이 협 수(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제2차 마인드 콘트롤

강좌 안내

일 시 : 80. 9. 11<목>부터

오전반 : 9시 30분

오후반 : 6시 30분

장 소 : 전주 가톨릭센터

강 사 : 김중배(말시아노)선생

무료 공개 강의 : 9. 11~12

(2일간)

연락처 : 가톨릭센터

전화 ㉠ 3498 · 7127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지구별 성가경연·웅변대회...오늘(9월 7일) 각 지구별로
※ 웅변대회 입상자 원고 우송바랍니다.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6, 천주교 전주교구청 평협사무실」
 2. 핑퐁 원고 마감...9월 13일(토) 까지 마감합니다
 3. 평협 임시총회: 9월 14일(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 가톨릭센터에
※ 각 분당 사도회장단 중 1인은 꼭 참석 바랍니다
 4. 남·여 2, 3 젼모임: 14일 오후 2시, 중앙성당
 5. 제 4지구 중·고등학생 회장단 회의...9월 13일(토) 오후 4시, 중앙성당 사제관 3층에서
 6. J.O.C 임원 피정...9월 13일(토) 오후 8시~14일(일), 가톨릭 센터에서
 7. 전주교구 중·고등학생 연합회 주최 제 6회 교리경시대회를 치루고...38개 전분당 참석
학생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소홀이 여겼던 교리를 이번을 계기로 충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해 주신 분당신부님, 사도회 임원님, 학생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군인성당 건립을 위한 성금(정승현 신부님)...복자성당 이현수(2만원)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부주 익명 2분(2만원)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성규
사도 회장 김병규

1. 사도회 월례회: 11일(목) 저녁미사 후
 2. 프란치스코 3회: 오후 2시, 성당
 3. J.O.C 일반회: 7일 오후 2시, 강당
주제: 하느님, 나, 만남, 강사-문정현 신부
 4. 분당 복자성월 행사안내
10일: 세속인의 성인 성 토마스 모어
13일: 영화 "성 토마스 모어"(4세절의 사나이)
17일: 한국 천주교의 순교와 종교 자유
24일: 단막극-소년 복자 유대철
탈출-복자 김대진 신부
부극-이누갈다 옥중서간 시간: 저녁 8시
 5. 각 쉼의장, 학생회 임원회의: 학생미사후 박신부 방
 6. 중학생 교리: 9시 학생미사 후
 7. 학생들 지명자산 참배: 9월중 매주 일요일
새벽 5시까지 학생들 성당에 집합
 8. 남·여 2, 3 젼모임: 14일(일) 오후 2시, 강당
 9. 웅변대회 출전하시는 분: 9시미사후 박신부님방에서
- 지난주 봉헌금: 379,338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열
사도 회장 박준근

1. 제 9차 성령세미나 개최: 8일~13일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접수: 8일 오후 1시 30분~2시까지
 2. 애령회 월례회의: 오늘 공식미사 후
 3. 청장년 재속 형제회: 매주 공식미사 후
 4. 성서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9시까지
 5.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6. 금주의 성경읽기: 시편 전체
 7. 젊은이의 음악감상: 13일(토) 오후 7시부터
분당 강당에서,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25,42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오정열
사도 회장 양상열

- ☆ 9월은 복자성월! 매일 미사후 공동성월 바치
1. 예비자 교리: 오늘부터
젊은이-조정오 신부, 노인반-채벨라매다
 2. 모든 교우분들 레지오 마리아에 관심을 가지시다
성실하신 어머니님 탄생
 3. 새로 이사오신 분: 김정자(엘리사벳), 여영순(아베스), 송진남(수산나)씨 가족
 4. 젊은이들은 청년회에 관심을 갖고 협조합시다
20세~40세이하
 5. 추석합동 위령미사를 한 가정도 빠지지 마시고 봉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294,419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허재석, 최순덕)
2. 예비자 교리 안내
매주일 공식미사 후(허혜사씨)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범진부님)
3. 젼모임: 2제 남자 토요일 오후 5시
2제 여자 토요일 오후 6시

3제 남여 토요일 오후 4시
젼미사-금요일 저녁미사, 주일 학생미사-오전 9시

4. 어머니들 성가경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김동준 신부님 지도)
 5. 영세식: 27일 오후 7시30분, 대부모와 준비 바람
 6. 축! 영명: 범라파엘 보좌신부님(9월 29일)
봉투에 영적 물적 예물을 정성껏 바쳐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255,42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축! 성 안셀모회 발족: 성경연구 및 대화
대상: Cell 지도자 및 대학생
모임: 격주 일요일 오후 4시
 2.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3. 성심부녀회: 10일(수) 오후 2시(성경연구 및 성가)
 4.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예비자 교리 시작합니다(다음주부터)
일반인: 금요일 저녁 8시(사제관)
부녀부: 일요일 공식미사 후(교리실)
학생: 토요일 학생미사 후(교리실)
 6. 어머니 성가대원 모집: 수녀님께 신청 바람
 7. 다음주 전례담당
신자들의 기도: 박병환, 독서: 박형식·김태수
- 지난주 봉헌금: 139,690 교무금: 12,000원

(숲정미)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도회 월례회·신협미사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청년회: 수요일 오후 8시, 분당 회합실
 3. 주일학교 후원회·주부철례: 9월 8일 오후 2시
 4. 성가경연: 주일 공식미사 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5. 신축기금 내주시 분: 파티마분당 신임액중 김중순
5만원, 김양순 1만원
- 지난주 봉헌금: 190,18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수
보좌 신부 김기숙
사도 회장 김기숙

1. 사도회: 저녁미사 후
 2. 유아세례: 9시미사 후
 3. 자모회 피정(9월 6일) 무사히 마쳤습니다
 4. 자모회 정기총회: 9월 8일 오전 10시
 5. 숲정미 신축기금 빨리 내주세요
 6. 다음주 전례담당: 9월 14일
아침미사: 사회-이진홍, ① 김대원 ② 배양길
공식미사: 사회-이영자, ① 안득수 ② 장금배
저녁미사: 사회-김윤주, ① 김동수 ② 임순만
- 지난주 봉헌금: 402,72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 8시미사 후
 2. 꾸리아 회합 예고: 다음주 오후 2시
 3. 레문도 수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어린이 교리시작: 매주(토) 오후 2시30분
 5. 수녀원 신축기금 신임하신 분들: 임마리아·전콜롬바·김중순·소울리아(각10만원), 김마리아·김요셉·조요안나(각2만원), 김베로니카(3만원), 윤마리아(7만5천원), 정혜혜나·배바울라·장엘리사벳·조안드레아(각1만원), 이안토니아(5천원), 박베드로·정베나시오(각 5만원)
- 어린이회금: 2,660원
 지난주 봉헌금: 99,925원 교무금: 74,000원